



The graphic features a central white box with a purple border. At the top and bottom of the box are two rows of circular icons representing various policy areas. The text 'Policy ISSUE REPORT' is prominently displayed in the center. To the right of the text is the logo of Jeollabuk-do, which consists of a stylized, multi-colored shape. Below the logo, the text '전라북도' is written. The background of the graphic is a purple and blue geometric pattern.

Policy
iSSUE
REPORT

전라북도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중장기계획 수립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진

여효성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장욱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04
II	전라북도의 인구 및 산업변화	
	1. 전라북도의 인구구조	06
	2. 전라북도의 산업구조	09
III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사업 현황	
	1. 국가 경제교육 사업 실적	13
	2. 세대별 경제교육의 필요성 및 주제	15
	3. 시사점	20
IV	정책제언	
	1. 경제교육 기반 조성	23
	2. 경제교육 전달 매체의 다양화	24
	참고문헌	26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의 배경

- 전라북도는 2020년 2월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¹⁾
- 새로 통과된 조례에서는 도민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경제의식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경제 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제교육”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 제2조 1호에 따른 교육을 의미하며, 이밖에 “경제교육단체”, “경제교육인력”에 관한 정의는 법의 제2조 2호, 제2조 3호에서 정한 정의를 따르고 있음
- 경제교육법에서는 “경제교육을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경제교육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의미함
 - 경제교육을 주된 업무나 부수적 업무로 하거나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경제교육인력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1)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02-28 조례 제4747호

- “경제교육인력”이란 경제교육을 하거나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 경제교육단체의 연구원
 - 그 밖에 경제교육을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 “경제교육 학습체계”에 관해서는 조례에서 별도로 “경제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조례에서 밝히고 있는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의 기본목표는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 전라북도민의 합리적인 경제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적극적인 제공
 - 신용경제사회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경제주체 양성
 - 세계 경제시대에 지역경제를 선도할 경제인 양성 토대 구축
- 또한 조례 제6조에서는 이러한 기본목표 하에 경제교육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6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중장기 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4.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민간차원의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및 지원방안
6.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방안
7.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8.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본 연구는 조례에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중장기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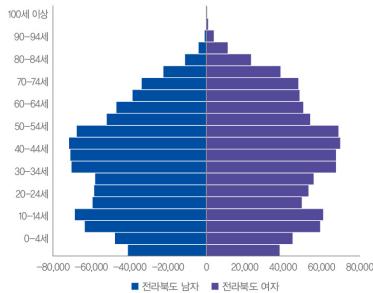
전라북도의 인구 및 산업변화

- 여기서는 인구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한 경제교육 활성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의 인구 및 산업구조를 파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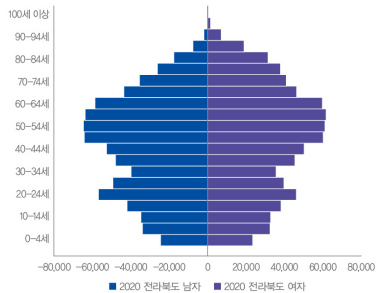
1. 전라북도의 인구구조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사용하여 2010년~2040년 기간 동안의 전북의 인구 피라미드를 아래의 그림에서 제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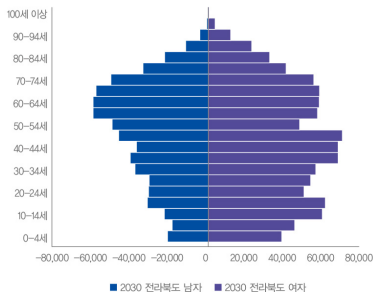
• 2010~2040년 전라북도의 인구피라미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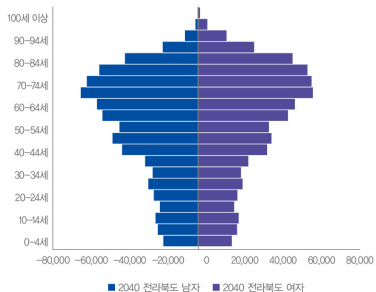
2010년 전북 인구피라미드



2020년 전북 인구피라미드



2030년 전북 인구피라미드



2040년 전북 인구피라미드

- 2010년 전북 남성기준 인구비중이 높은 연령대는 35~55세 그룹이었으며, 10~20세 유소년 연령층의 비중도 낮지 않았음
 - 반면 20~30대의 인구유출 영향으로 이들 그룹 인구는 40~50대, 10대에 비해 낮아 쌍봉형 인구피라미드의 지녔음
- 2020년 기준으로 2010년의 인구 구조적 특성은 크게 변하지 않아 단순히 10년 전 최빈도를 나타내는 연령층이 50~54세 그룹으로 올라갔으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2010년도 최빈그룹의 고령화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음
 - 또한 활발히 경제활동을 영위해야 하는 30대의 인구유출은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계속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30~34세 연령구간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인구수가 낮음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
- 통계청이 추계하는 중위인구 기준으로 2030년 전라북도의 인구피라미드는 점점 역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내어 유소년, 청장년 계층에 비해 60세 이상 노년층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형태를 나타냄
- 인구 고령화 추세는 2040년에도 바뀌지 않을 전망으로 향후 20년 뒤인 2040년에는 남성인구 최빈그룹의 연령대가 65~70세로 높아지게 되며, 70세 이상 인구의 비중도 높아지는 초고령사회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고령사회의 도래는 전국적인 추세라고 볼 수도 있으나, 전라북도의 경우 전국의 추세보다 더 빠르게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성별·연령별 인구비율 •

2020년 성별·연령별	전국		전라북도		전국 대비 전북 비율격차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남자
65세 이상	19.40%	23.60%	23.20%	29.30%	3.80%	5.70%
20세~64세	64.30%	61.10%	60.40%	55.40%	-3.90%	-5.70%
19세 이하	16.30%	15.30%	16.40%	15.30%	0.10%	-0.10%

2030년 성별·연령별	전국		전라북도		전국 대비 전북 비율격차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65세 이상	28.50%	32.90%	33.10%	38.30%	4.50%	5.40%
20세~64세	58.20%	54.60%	54.00%	49.40%	-4.20%	-5.10%
19세 이하	13.30%	12.60%	12.90%	12.30%	-0.30%	-0.30%

- 2020년 현재 전라북도 전체 인구 중 남성, 여성의 65세 이상 비율은 각각 23.2%, 29.3%임
 - 이는 전국 65세 이상 남성, 여성 인구비율인 19.4%, 23.6%에 비해 각각 3.8%, 5.7% 높은 수치임
 - 고령층 인구비중이 높은 대신 생산가능인구인 20세~64세 이하의 인구비중은 전라북도의 경우 남성 -3.9%, 여성 -5.7% 낮은 수준임
- 현재도 전국의 인구구조 대비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은 전라북도의 인구구조는 향후 10년 이후인 2030년에도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2030년 전북의 65세 이상 남성, 여성 인구 비중은 각각 33.1%, 38.3%로 현재보다 10%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지게 됨
 - 전국의 고령화 추세와 비교해서도 전북의 인구 고령화 추이는 더욱 가파르다고 할 수 있는데, 2030년 전국대비 65세 이상 남성, 여성 인구비중 격차가 각각 4.5%와 5.4%로 높아져 현재보다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전라북도의 경우 인구 고령화 사회가 현재 이미 도래하였으며,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전국 평균과 대비하여서도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나타남
- 인구구조의 특성상 단기간에 큰 흐름이 변화할 가능성은 적으며, 전라북도의 경우 경제교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인구구성의 비중이 높아지는 중장년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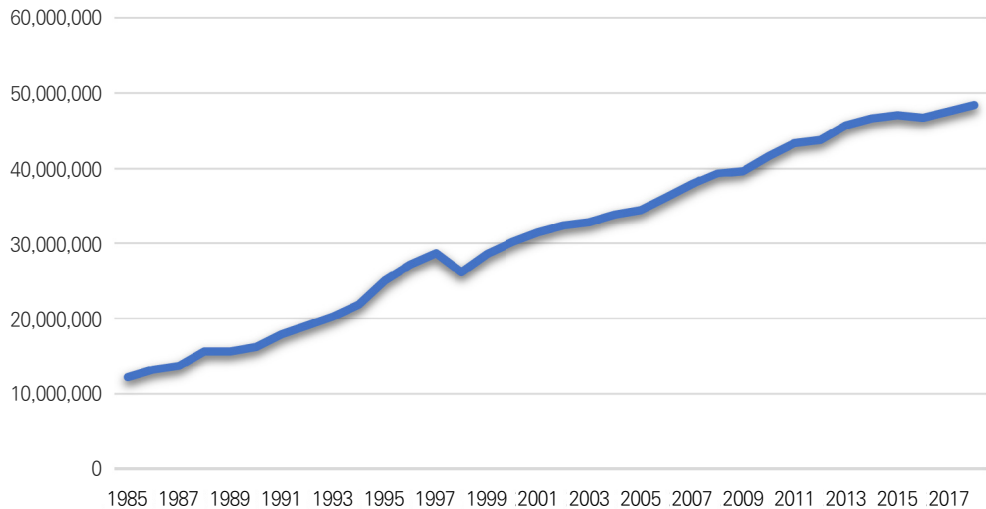
- 19세 이하 청소년 인구의 경우 정규 학교교육 과정에 경제 관련 교육을 일부 도입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경제교육 센터의 특별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어 있는 상황임
- 반면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연령층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이나 경제의식 함양과 관련한 교육은 활성화가 미흡함

2. 전라북도의 산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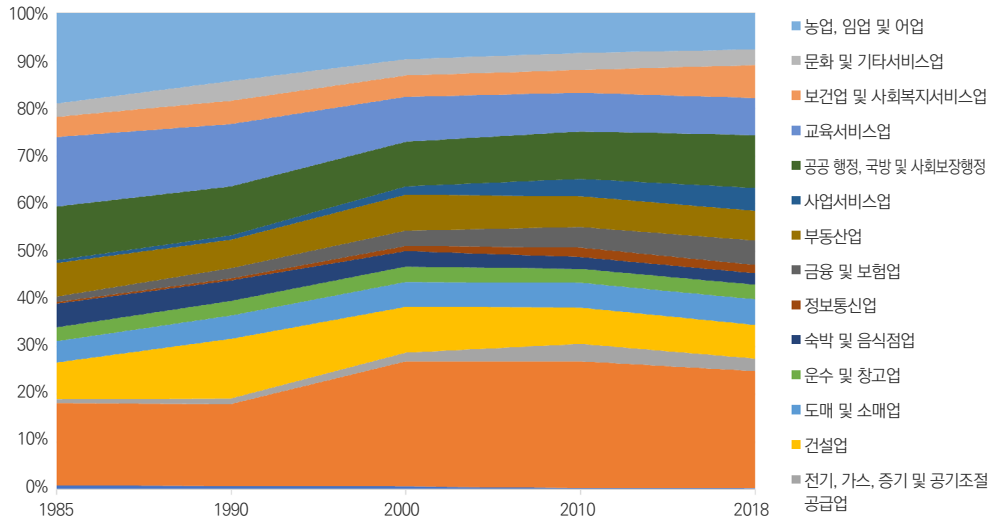
- 다음 그림은 1985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전라북도의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 추이를 나타냄
- 1985년 12.2조 원이던 시장가격 기준 전라북도의 실질 GRDP는 2018년 기준 48.3조 원으로 4배가량의 양적 성장을 이뤄냄

• 전라북도의 지역내총생산(1985~2018년) •

단위 : 백만 원, 시장가격 기준 실질 GR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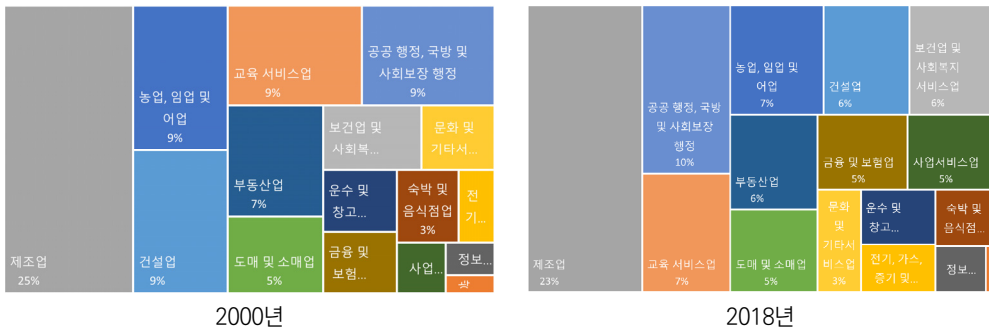


• 전라북도의 산업별 지역내총생산 비중(1985~2018) •



- 1985년 이후 전라북도 경제구조의 변화추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농업 및 임업, 어업의 비중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반면 제조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 졌다는 점임
- 제조업 비중은 2000년 이후 증가폭이 둔화되고 지역내총생산 비중을 기준으로 정체 되어 있음
- 현재와 2000년도 산업 대분류별 비중을 다음의 트리맵으로 비교 제시함

• 전라북도 산업별 비중의 트리맵 •



- 2000년도 전라북도의 주요 산업은 제조업(25%), 농업, 임업 및 어업, 건설업, 교육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9%)이었음
- 2018년도 전라북도의 주요 산업은 제조업(2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0%), 교육서비스업, 농업, 임업 및 어업(7%), 건설업, 부동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로 나타남
- 2000년도와 비교해 보면 전라북도의 주요 산업인 제조업과 농업, 임업, 어업의 비중이 각각 2% 낮아진 반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짐
- 향후 전라북도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통계에 의한 추계로는 산출가능하지 않으나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뒤의 주력 산업은 과거의 변화처럼 지금과는 다를 가능성이 있음
 - 가령 30년 전인 1985년 전라북도의 농업·임업·어업과 제조업 비중은 각각 17%와 16%로 농업·임업·어업이 도의 주력산업이었음
- 현재 도의 주력산업은 23%의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이나 자동차 생산 클러스터인 군산 등 제조업중심 도시가 산업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지역경제 침체 등을 겪는 추세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는 향후 20년 기간 동안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현재 정규교육을 통해 경제교육을 받는 청소년 연령층의 경우 이러한 산업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여 직업선택 진로교육 및 경제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높음
- 이러한 추세적 변화에 대응한 교육과정의 제공이 없이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30~40대 인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만족할 만한 직업교육과 바람직한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할 유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 청소년 계층에 대한 내실 있는 경제교육이 제공되어야 함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전라북도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높아지는 중장년층 및 고령인구에 대한 경제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보급, 확산해 나갈 필요성이 높음
- 또한 가장 경제활동이 활발해야 할 30대 인구의 타 지역 이주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인구의 진로교육을 포함한 내실 있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음

III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사업 현황

1. 국가 경제교육 사업 실적

- 올해 2020년 국가가 직접 법에 의해 경제교육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국가 경제교육 활성화 사업

- 사업목적: 아동, 학생 및 경제교육 소외계층에게 소득, 소비, 투자 등에 대한 기본소양을 습득하도록 하여 올바른 경제정보 제공을 통한 합리적 소비문화 정착 및 경제활동 기반 마련
- 총사업비: 210백만 원(국비 160, 도비 50)
- 사업대상: 유치원, 초중등학생, 소년원 및 양로원 등 경제교육 소외계층
- 사업규모: 교육회수(850회), 교육시간(1,700시간), 교육인원(27,000명)
- 사업내용: 강의, 체험 교육을 병행한 맞춤형 찾아가는 경제교육
- 시행주체: 전북경제교육센터(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근거법령: 경제교육지원법(제9조 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교육 센터에 대한 경제교육 지원 규정

- 2019년도 국가 경제교육 사업의 추진실적은 아래와 같음

2019년 국가 경제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

- 학생교육 프로그램(266회, 628시간, 11,840명)
 - 초등방문 경제교육(영화에서 찾아보는 4차 산업혁명, 내가 만든 사회적기업 등)
 - 중등이상 경제교육(평화가 경제다, 마음을 나누는 사회적 경제 등)
 - 체험경제교육(4차 산업 혁명을 리드하는 경제캠프, 창업캠프 등)

- 취약, 소외계층 프로그램(371회, 748시간, 7,093명)
 - 아동센터 경제교육(동화로 읽는 경제, 노래로 듣는 경제, 영화로 보는 경제 등)
 - 경력단절여성 경제교육(여성과 일자리,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 등)
 - 다문화 가정(짚순이 엄마의 행복한 경제)
- 일반프로그램(12회, 24시간, 275명)
 - 대학생 및 학부모 경제교육(금융보험, 미래형 부자 등)

- 한편 국가의 지원을 받는 전북지역경제교육센터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전북지역경제교육 센터 현황 •

설립목적

- 전북지역경제교육센터는 지역의 경제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대상별·계층별로 다양하고 표준화 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다.
 - 지역경제교육센터 경제교육 사업 활동이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교육 표준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 학생, 청소년, 교사, 지역 주민(취약계층), 공공기관 공무원, 기업의 회사원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지역협의회 등 지역기관과 연대하여 지역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제고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특화된 시장을 활성화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주요업무

- 학생 대상 프로그램
 -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는 경제캠프 : 4차 산업혁명 이해 및 체험, 미래 진로 설계 도움
 -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 단계적 교육 :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구분하여 단계적 교육 제공을 위한 교재의 재구성
 - 콘텐츠 개발 :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공통으로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준비·계획
-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 YWCA와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학생 경제교육 강화 : 단계별 교육(6단계 제공)
 -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과의 협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대상 경제·금융교육 제공
 - 지역아동센터에 대학생 강사 파견으로 강의친화도모와 대학생 강사의식 변화 유도
 - 기타 복지관 등과의 협업으로 취약계층(노인) 경제교육 제공
 - 찾아가는 도서 벽지 지역 농촌마을 노인 경제교육 제공
-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
 - 일반인 대상 매칭 강화, 학부모 경제교육 및 재취업자교육 '재무설계' 강화
 - 강사역량 강화 재교육 및 워크숍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국가주도로 법에 의해 지역경제교육센터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내실 있는 경제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 및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 또한 제공되는 경제교육이 주로 청소년 등 학생교육 프로그램에 치중되어 있고, 취약 계층 및 소외계층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참가 인원이 학생프로그램에 비해 많지 않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부족함

2. 세대별 경제교육의 필요성 및 주제

-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경제배움터²⁾에서는 세대별 계층별 경제교육의 수요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생애주기에 따른 생애사건과 경제교육 주제 •

수요계층	주요경제활동	필요한 경제습관	필수경제역량
어린이	• 학습시작시기	• 저축 필요성과 방법	• 돈의 가치 알기 • 절약과 저축의 필요성
청소년기	• 학습지속 • 노동준비 • 직업 탐색	• 저축 실천 • 목표설정과 계획실천	• 계약과 합리적 선택 • 금융회사 이용법 • 창업과 진로 선택 • 생애 설계 필요성 • 위험과 수익성 관계 이해
청년기	• 취업 • 창업 활동 • 가족 형성 • 자녀 양육	• 사업자금 마련 • 주택자금 • 보험가입 • 신용관리	• 재무목표 설정 • 저축과 투자실천 • 신용관리와 대출 • 새 진로 모색과 계발 위험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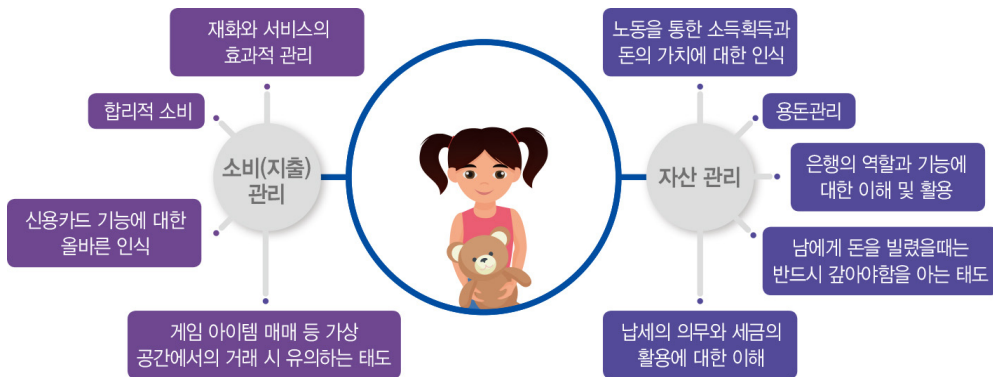
2) 경제배움터(<https://www.econedu.go.kr/mec/ots/cms/content.do?mnuBaselId=MNU0000131&tplBaselId=e76693ca-f42b-424b-a94a-81d68863db13>)

수요계층	주요경제활동	필요한 경제습관	필수경제역량
중장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 활동 • 사업 확장 • 자녀교육과 결혼 • 부모 부양 • 주택 투자 • 은퇴 후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적 자금 비축 • 자신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사건에 대비한 자금 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과 투자 실천 • 사업·주택 확대와 대출 • 자산 축적 • 노후 대비 위험 관리
노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양식 조정 • 자산 소진 • 연금 이용 • 보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 관리 • 축적 자산 관리 • 사기 피해 예방 • 보험 활용 능력

자료 : e경제배움터, 세대별 경제교육

- 먼저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교 교육과정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아동기의 주요 경제 교육은 경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습득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 아동기는 개인의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형성된 소비습관은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함
 - 소비 및 지출 관리의 형성(신용카드의 기능 및 올바른 활용법 등), 용돈 관리 등을 통한 자산관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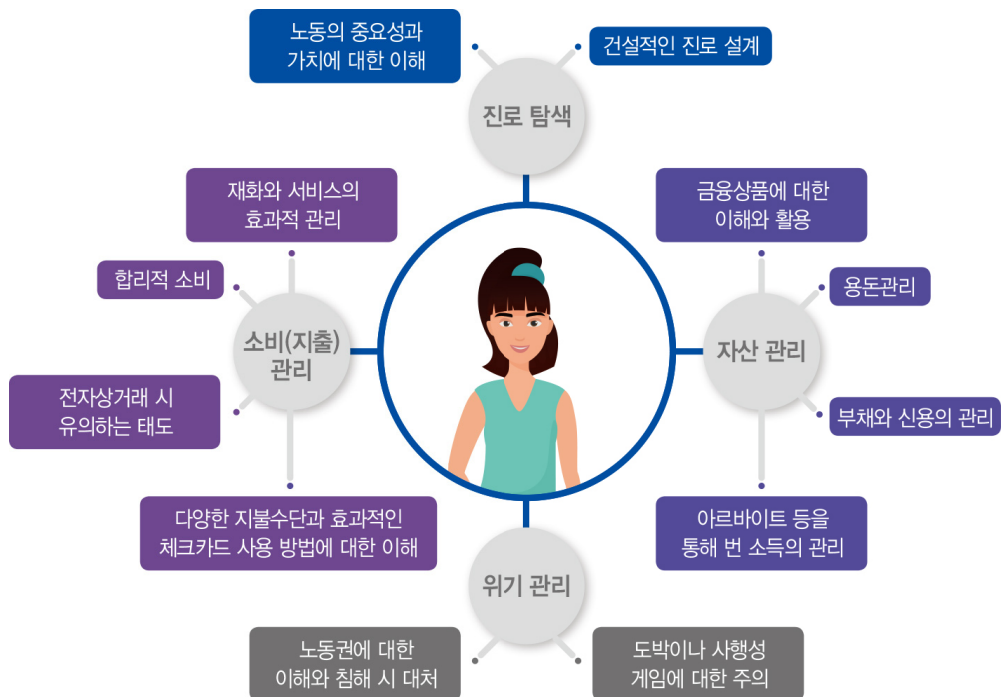
• 아동기의 주요 경제교육 주제 •



자료 : e경제배움터

- 중등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청소년기의 경제교육은 진로탐색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노동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준비는 무엇인지 충분한 정보를 경제교육 과정에서 제공해야 함
 - 다양한 직군 및 직업별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이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노동 생산성과 관련이 있으며, 개인별로(혹은 국가별로) 노동 생산성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학습함
 -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서 앞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자격습득 및 학습 방향에 대한 진로교육이 정규 교과과정에서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청소년기 경제교육에서도 소비지출과 자산관리에 대한 교육은 아동기의 연장 선상에서 계속 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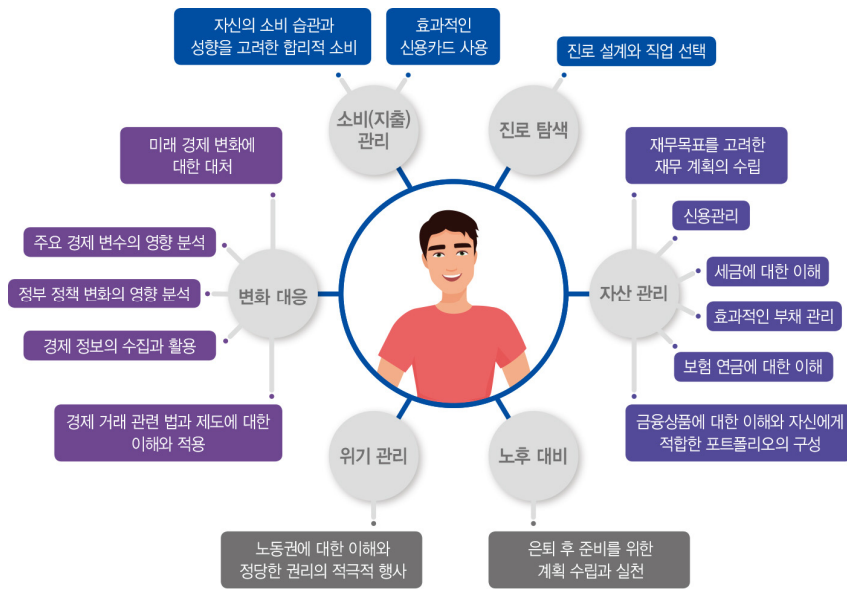
• 청소년기의 주요 경제교육 주제 •



자료 : e경제배움터

- 정규 교과과정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한 사회초년생 시기에 해당하는 20~30대 청년기의 경제교육부터는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법, 예상치 못한 실업에 대한 방어권 행사,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노후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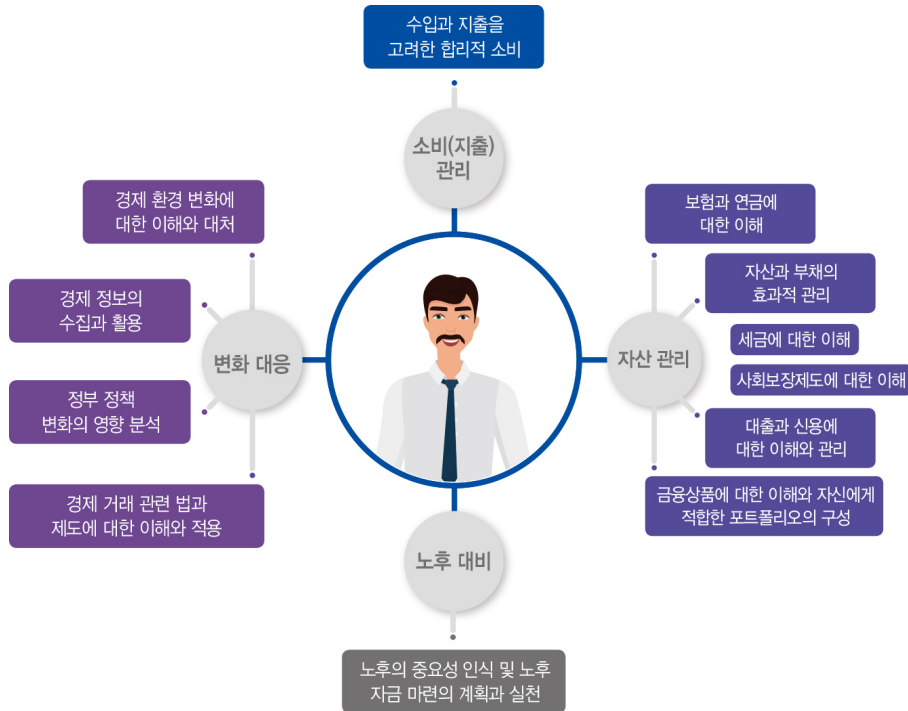
• 청년기의 주요 경제교육 주제 •



자료 : e경제배움터

- 40~50대에 해당하는 장년층의 경제교육에서는 노후대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해짐
 - 청년기 경제교육의 경우 일찍부터 노후 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목표를 둔다면, 장년층의 경우 은퇴 이후의 삶이 10~20년 이내로 가까워짐에 따라 노후 대비는 바로 앞의 당면 과제로 떠오르게 됨
 - 은퇴 이후 노동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 흐름이 끊기게 되는 노년기에 노년 빈곤층으로 계층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기초 연금 등의 사회 안전망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 이를 위해서는 소득의 일정부분을 개인연금저축 등으로 관리, 운용을 시작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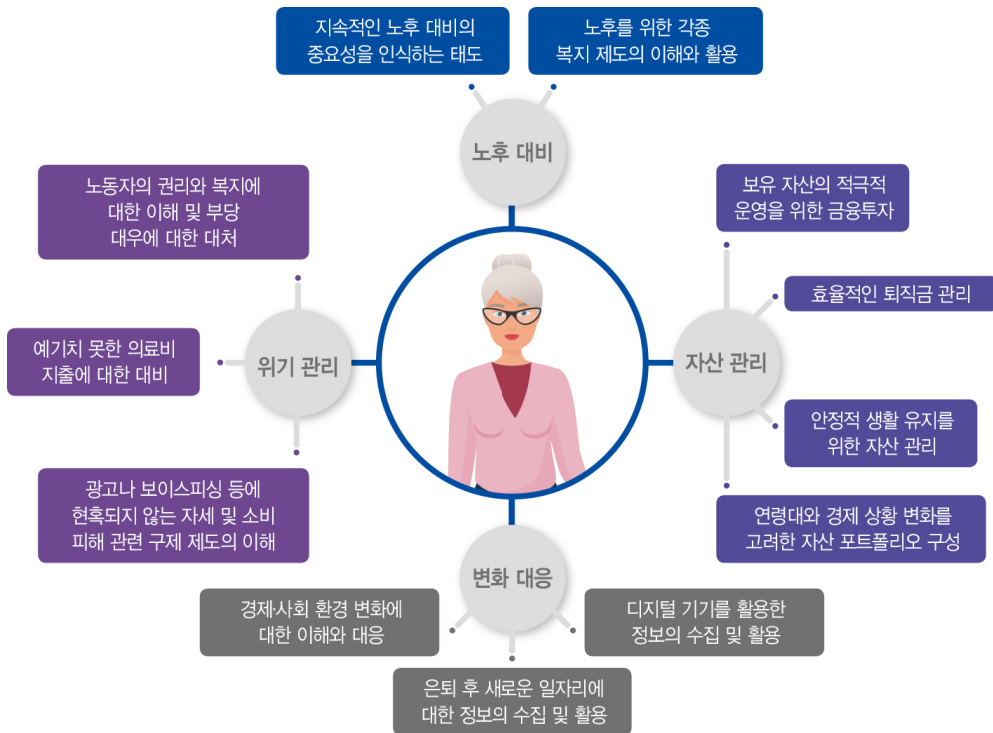
• 장년기의 주요 경제교육 주제 •



자료 : e경제배움터

- 60대 이후 노년기는 축적된 저축, 주택 등의 자산을 활용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시기이며, 의료비 지출 등과 같은 위기관리 능력도 갖춰야 함
 - 이밖에도 노년층의 경우 청년기, 장년기와 비교하여 새로운 정보를 습득, 해석하고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사기, 광고, 보이스피싱 등의 경제범죄에 취약한 시기에 해당하며
 - 경제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교육시키는 것이 노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
- 은퇴 이후 재취업을 통한 근로소득의 연장 및 일을 통한 보람을 찾는 것이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에 따라 재취업 관련 교육(보육 서비스, 지역명소 안내) 제공 및 자원봉사 기회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노년층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노년기의 주요 경제교육 주제 •



자료 : e경제배움터

3. 시사점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민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연령별, 성별, 소득 계층별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교육에 대한 수용도를 높일 필요성이 높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라북도의 지역경제교육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혹은 중·고등학교 특별활동 시간의 일회성 교육으로 대부분 편성이 되어 있으며, 중장년층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제공 횟수나 대상이 충분하지 않음

- 2020년을 기준으로 전북지역 지역경제교육센터³⁾가 제공하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중학교 신청 학교, 학년을 대상으로 특별활동 시간에 1~2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전북지역 지역경제교육센터 프로그램(일부) •

교육명	대상	주제	교육일자
초등방문 경제교육	군산 초등학교 5학년 경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나도 예비창업자 • 2차 영화와 멘토 	1차 20-06-22 2차 20-06-24
	남원 초등학교 5,6학년 경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돈관리 	20-07-02
초등 경제교육	전주 초등학교 4학년 경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자돼지 	20-07-02
	군산 초등학교 4학년 경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약의 법칙 	20-07-21
중등 경제교육	김제 중학교 1학년 경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 	20-07-02
	전주 중학교 1학년 경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합리적 소비를 부르는 경제 	20-06-19
지역아동센터 경제교육	군산 아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동화로 배우는 경제 • 2차 영화로 배우는 경제 • 3차 노래로 배우는 경제 • 4차 나도 여행플래너 	20-06-10 ~06-30
고등학교 경제교육	전주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와 경제 	20-06-30
예비사회인을 위한 경제교육	고등학교 3학년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사회인을 위한 경제교육 	19-12-09
노인복지관 교육	○○노인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시 1억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할까? • 2차시 웰 에이징 • 3차시 4차 산업혁명시대 공감하며 소통하기 • 4차기 문화와 경제 	20-06-25 ~08-20

3) [https://www.econedu.go.kr/mec/ots/brd/view.do?pagelIndex=1&tplSer=62&atcSer=0831b5c3-94f6-42ec-885b-1a3849148996&mnuBaselD=MNU0000150&searchCondition=&catCd=LOCT0008&searchKeyword=\(전북 지역경제 교육센터 일정 2020. 12 최종 확인\)](https://www.econedu.go.kr/mec/ots/brd/view.do?pagelIndex=1&tplSer=62&atcSer=0831b5c3-94f6-42ec-885b-1a3849148996&mnuBaselD=MNU0000150&searchCondition=&catCd=LOCT0008&searchKeyword=(전북 지역경제 교육센터 일정 2020. 12 최종 확인))

-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은 고3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사회인을 위한 경제교육”이 거의 유일한 교육 프로그램이며, 중장년층을 위한 교육은 제공되고 있지 않음
-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은 4회에 걸쳐 노후자산 운용 교육(“1억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할까?”), 은퇴 후 제2인생 설계를 위한 교육(“웰 에이징”, “4차 산업혁명시대 공감하며 소통하기”), 교양강좌(“문화와 경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이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제공되고 있음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생애 주기별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경제교육의 필요성 및 수요는 높지만 현재 국가 주도의 경제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은 도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경제의식 함양과 이로 인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도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인식할 때, 도가 경제교육 활성화에 조례를 지정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함
 - 도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 과소 공급되고 있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적정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중앙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해야 함
 -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교육 대상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한 개 이상의 지역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지역 내 관련 금융 기관, 공사, 대학교 등의 유관기관들과 협력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음

IV

정책제언

1. 경제교육 기반 조성

- 도민에 대한 경제교육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간과되어 왔으며, 경제 관련 콘텐츠의 과소 공급이 만연해 있음
-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intra-temporal optimization), 생애주기에 따른 자원의 배분(inter-temporal optimization)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경제적 문제, 혹은 미래에 예상되는 위험(risk)을 대비하고 보험 등의 수단을 통해 회피(hedging)하는 문제는 개인이 매순간 부딪히게 되는 문제임
- 이를 감안하면, 도민들이 당면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내리도록 돕는 경제교육 활성화는 도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 활성화, 더 나아가서는 경제성장률 등으로 측정되는 지역경제 지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따라서, 경제교육의 만성적인 과소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가 주체가 되어 경제교육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현재의 과소공급 수준을 적정수준 혹은 목표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지역 내 경제교육 기반을 확충해야 하며, 국가가 지역별로 단수로 지정한 개소의 지역경제교육 센터와 별도로 도에서 추가 지정 및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경제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도내에 위치한 대학교, 국민연금관리공단,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전북연구원 등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2015년 전주로 위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의 가입자 관리, 연금 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지급의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높은 고령화 비율 및 중장년층의 노후 대비 교육이 크게 부족함을 고려할 때, 연금관리공단과의 경제교육 프로그램 관련 협업은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됨
- 국민연금관리공단 또한 지역사회 기여의 일환으로 노후 대비, 연금 납입 및 연금 수령 늘리기 등의 강연, 콘텐츠 제작 배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경제교육 관련 학과(경제학과, 경영학과, 금융학과, 무역학과 등)가 설치된 전북내의 대학(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전주대학교,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호원대학교 등)이 보유한 전문가 인재풀을 확보하고, 경제교육 관련 전문가들의 협력망 구축을 지원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지역 거점대학들이 시군 경제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필요에 의해서는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지방자치와 관련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전북연구원에 경제교육센터를 설치하여 1) 경제교육 관련 중장기 계획의 수립, 2)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망 구축, 3) 도내 경제교육 전문가 그룹의 활용, 4) 경제교육 관련 콘텐츠 구상, 개발, 확산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음

2. 경제교육 전달 매체의 다양화

- 현재 개발 활용되고 있는 교육관련 콘텐츠의 전달은 학교, 노인센터 등의 전달과정에서 물리적 시간적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음
- 경제교육 강사가 지정된 시간에 찾아가서 방문교육으로 진행하는 방식은 교육인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대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 동영상, 비대면 과정으로 다양화 하여 개발, 배포하여 경제교육 이수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함

- 비대면 과정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내용의 흥미유발, 전달력, 정보의 깊이를 개선하여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는데 보다 효율적임
- 비대면 경제교육 과정의 보급은 사회취약 계층, 다문화 가정, 반복적 학습이 필요한 노년층, 흥미 및 동기유발이 쉽지 않은 아동 등의 교육에 효과적임

참고문헌

- 손정식 외(2009). 국내외 경제교육 현황 및 시사점. 한국교육경제학회.
- 심재학 외(2017. 5). 지역경제 교육센터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심재학(2015. 10). 정부의 경제교육 현황 및 정책 제언. 한국경제포럼 제8권 제4호.
-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2015). 「정부의 경제교육 역할 및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 기획재정부 경제경제e(<https://www.econedu.go.kr/>).
- 경제교육지원법.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2017. 7. 26).
- 전라북도(2019).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안)(2020~2024).
-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0. 2. 28, 조례 제4747호).